



곽병찬
한겨레신문 편집 부국장

농사꾼처럼

빙글빙글 웃는 것이 꼭 뉘 나간 놈 같았나 봅니
다. 엄마 엄마, 아빠 뭐가 그리 좋아서 저런
데. 큰 소리로 물어보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진
말건 제 입가에 푼수없이 맴도는 웃음은 피할 수 없
었습니다. 집에선 화분 몇 개에 물이나 주는 것으로
집안일 다 한 듯이 품잡던 제가 열가리 배추를 다듬
으면서 부처님처럼 웃고 있으니 아이들로선 신기하
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제 앞에는 한 다발쯤 되는 열무가 있고, 배추 한
광주리가 놓여 있습니다.

어린 것들은 건저리 김치용이고, 열무와 큰 배추
는 일반 김치용입니다. 방금 밭에서 캐낸 것들이어
져 무엇 하나 버릴 것은 없지만, 열무나 배추의 상
처 난 이파리는 떼내어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한번
데쳤다가 된장찌게 끓일 때 넣기 위한 것입니다.

쳐라고 놀고 있지는 않았습니. 한 묶음 되어 보
이는 두릅 손질해 데치고, 역시 한 다발은 죽히 되
어 보이는 고사리 여린 것들을 데쳐 말릴 준비를 하
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큰 접시에 생닭 한 마
리가 있습니다. 나물 정리한 뒤 아마 그걸로 백숙을
할 모양입니다. 뉘 빠진 사람처럼 애비는 빙글빙글
거리고, 엄마는 김치 준비하라 나물 준비하라 분주

히 돌아다니는 모습에 아이들도 공연히 신나는 듯
흥얼거리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잔치집 아
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숙은 배추의 싱그런 향내와 함께 내 콧을 짱 하니
흔드는 것은 나의 마석 친구였습니다. 이 잔치집 분
위기는 순전히 그 친구 덕분이었으니까요. 경춘가
도를 달리다 마석 읍내를 거쳐 깊숙이 들어가면 수
동리가 나옵니다. 물이 맑고 많다고 하여 수동인데
그도 그럴 것이 왼쪽에는 천마산에서 주금산까지
광주산맥의 끝자락이 길게 이어지고, 오른 쪽엔 축
령산을 중심으로 연봉이 말 달리듯이 늘어서 있습
니다. 양쪽 산줄기가 사시사철 맑은 물을 제공하니
그곳 이름이 물골인 것은 당연합니다. 물골 중간쯤,
축령산이 수동천쪽으로 흘러보낸 산줄기가 있고,
그 꼬트머리의 야산에 내 친구의 집이자 일터는 있
습니다. 거기엔 마늘 배추 고추 등 밭작물과, 닭 오
리 등 가금류, 여러 종류의 개들이 그의 손을 기다
립니다. 오전에 농사일을 끝낸 그는 이른 점심을 먹
은 뒤,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서울로 올라옵니
다. 농사만으로는 역부족일테니까요.

주 수입원은 서울 사업체에서 나오지만, 그는 한
사코 자신이 농사꾼이라고 주장합니다. 부인한테는

미안하지만, 서울 집에서 여덟 시간 자는 것보다 농장에서 두세 시간 퍼져 자는 게 훨씬 피로회복에 좋다고 말하는 게 그 친구입니다.

계절은 5월의 여왕 라일락이 그 자리를 철 이른 장미에게 물려주고, 산철쭉의 화사한 꽃구름이 물러가고 향기 짙은 아카시아 꽃이 막 필 때쯤입니다. 몸이 근지럽던 터에 집사람을 꼬드쳐 물골을 찾았습니다. 전에 봐왔던 산나물도 캐고, 물도 길어오고, 코에 바람 좀 쉴 요량이었습니다. 주인장이 술한 잔 권하면 마시고, 짬.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잔뜩 흥과 땀에 절은 반팔 티셔츠와 실쭉구레한 모자는 그를 영낙없는 농사꾼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새 밭에 취하고, 취나물 비름나물 향기에 취하고, 초록이 녹음으로 넘어가는 다채로운 산색에 취하고, 햇살에 취하고, 그리고 인근한 매실주에 취해 한 나절을 보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게다가 닭알 오리알 두릅 고사리 열무 열거리 배추 등도 우리 차에 실려져 있었으니 오죽 했겠습니까.

배추를 다듬으면서 내게는 이런 행복한 의문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는 어찌 그리도 넉넉할 수 있을까. 워낙 베풀기를 좋아하고, 친구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의 넉넉함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 실땀한 배추 뿌리에 묻은 흙을 털어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내게 떠올랐습니다.

그가 농사꾼이기 때문은 아닐까. 농사꾼이 아니고 도시의 비즈

니스맨이나 샐러리맨이었다면 그리 할 수 있었을까.

농사꾼은 하늘의 뜻에 따라 삽니다. 사람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는 절대로 제 자량을 하지 않습니다. 논 농사, 밭 농사 풍년이라고, 돼지 닭 건강하다고 제 탓이라며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늘에 고마워할 뿐입니다. 흉년이 들어도 원망 대신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의 곡식을 키워내는 것은 거지반 땅과 햇살과 비와 바람입니다. 그러니 농부는 사람의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리는 게 제 소임임을 잘 압니다. 그런 이들이, 제 땅에서 자랐으니 제 것이라고 생각할 리 없습니다. 하늘이 내린 것이니, 하늘이 비 내리고 햇살 뿌리듯 함께 나눌 것으로 생각할 겁니다.

반면 샐러리맨이나 비즈니스맨은 하늘의 뜻을 거의 느끼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오로지 제 힘으로, 상사의 지시를 수행하고, 경쟁자와 싸워 이기고, 그렇게 일한 대가로 받는 월급이니 어찌 하늘로 돌리겠습니까. 어찌 함께 나눌 것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전혀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러하니 어찌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런 소망마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내 새끼들이 저 농부처럼 자란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의 뜻 보다는 하늘의 뜻에 따르고, 나와 너를 분별하기 보다는 우리를 생각하고, 소유하기 보다는 나눔을 즐기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PPPK**

